전북대, 농자재 산업단지 조성 논의

완주 이서 제3창보센터 활용관련 전문가 기획 회의
융복합 연구 최적지, 입주기업 교통 인프라도 유리

전북대학교는 16일 완주군 이서면 소재 제3 창업보육센터 부지(이하 제3 창보센터)를 활용한 농자재 R&DB 단지 조성을 위한 전문가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 회의는 농생명과학대학 교수회의실에서 도시락 포럼 형태로, 지난 11월 16일 미래농업전략연구원이 주최한 1차 기획 회의에서의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토의를 펼쳤다.

전북의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이 이전해왔으나, 인접한 산업단지 조성이 미흡해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익산시 왕궁면에 농식품 클러스터 단지, 김제시 백산면에 종자 생명산업 단지가 조성됐으나, 농촌진흥청과 인접한 완주군 이서면에는 어떤 농생명산업 단지도 조성되지 않았다.

제3창보센터는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식량·원예특작·축산과학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이 4.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원들과 융복합 연구에 최적지다.

또한 서전주 IC와 1.8km 이내에 있어 입주기업의 활동에도 유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기술력은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7건이나 선정됐으나 우수 기술의 사업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농촌진흥청 인근에 농자재 R&DB 단지를 조성하고 활용하는 국가정책사업의 기획이 시급하다.

농촌진흥청 인근에 제3창보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대학교는 실질적이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류경선 학장은 "제3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한 학교의 지역사회발전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농자재 개발과 비즈니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 회의에 참석한 농기자재 정책 연구전문가인 강창용 박사(전 농촌경제연구원)는 "전북대 제3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농자재 산업 발전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온택트 입사서류 경진대회
호원대 취업지원실 시상식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실은 16일 온택트(on tact)입사서류 경진대회 시상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택트 입사서류 경진대회는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년별로는 4학년 11월, 3학년 12월 순으로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될 수 있는 취업준비를 위해 실시된 이번 대회는 전체 17개 학부(과)에서 850명이 참여, 총 시상금 72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접수, 심사, 사전교육 등 모든 절차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또한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취업가이드 모바일 북을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입사서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현판식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직공무원 전문성 신장 · 역량 강화 도모

전북교육청, 하반기 직무교육…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은 16일 오후 2시부터 시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2020 하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 대상자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총 160여 명이다.

직무교육을 통해 시설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설행정을 모색함으로써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학교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시설분야 일반 행정사항 ▲학교 내 보차도 분리 추진 계획 ▲겨울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비 ▲내진보강사업 추진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조치 요령 등 시설 담당별로 이뤄진다.

또한 ▲화장실 관리 조례 안내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학교시설공사 원가심사 검토 내용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준수 철저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른 전자카드제 시행 등도 안내한다.

특히 관련 법이나 개정 내용, 신설 조례 안내 등과 함께 각종 서류 작성 요령까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미래 기술 변화에 대비한 교육시설 기술직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기술직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 미래 무역전문가 양성 메카

GTEP 사업단에 15년 연속 선정… 도내 유일

전북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에 15년 연속 선정됐다고 전했다.

GTEP 사업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재학생들을 미래 무역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산업지원부가 지원하는 국책사업단이다. 현재 전국 20개 대학이 선정돼 활동하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는 전북대가 유일하다.

전북대는 지난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재선정됨으로써 향후 3년 동안 사업단 운영을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미래 무역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게 됐다.

GTEP 소속 학생들은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을 비롯해 해외 전시회 및 해외시장 개척단을 통한 바이어 상담, 통역과 번역, 무역계약 체결 등 수출 제반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 GTEP 사업단은 지난 3년간 총 110회의 국내외 무역박람회에 참가해 47만 달러 이상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

김민호 단장은 "전북대 GTEP 사업단의 15년 연속 사업 선정은 대학 본부와 전북도와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국 대학 중 무역학과로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만큼 학생들을 훌륭한 무역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도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전주비전대학교는 전북도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어린이집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도청 직원 자녀 중 만 5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주비전대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어린이집 운영은 물론 보육시설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전주비전대는 아동복지학과를 중심으로 대학 내 유아교육, 간호, 태권도체육학과 등의 학과와 연계해 어린이들의 보육과 정서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성품보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승훈 단장은 "이번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전라북도와 더욱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양질의 현장실습과 취업 등을 통해 우수한 아동보육 인력을 양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 창업지원단, 기업 온라인몰 입점 지원

전주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이상우)이 창업자의 아이템 홍보 및 판매,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몰 입점 지원에 나섰다. 〈사진〉

온라인몰 입점 지원 사업은 이노폴리스캠퍼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소비 감소에 따른 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창업 아이템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들은 16일부터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기획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마켓 ON'에 입점했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은 검증된 우수 창업 아이템, 천연 섬유향수, 버섯 가공식품, 스마트 슬링백, 건조가공식품, 커피드립백, 홍시찹쌀떡, 디퓨저, 커피 케이터링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상우 단장은 "온라인몰에서는 상위 노출이 쉽고 누구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이 외에도 창업자가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